



삼국의 불교 初傳者和 초기불교의 성격

The First Buddhist Missionaries in the Korean Three Kingdom Age and the Nature of Early Buddhism

저자 (Authors)	신종원 Sin Jong-wo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44 , 2006.12, 59-91 (33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44 , 2006.12, 59-91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2052
APA Style	신종원 (2006). 삼국의 불교 初傳者和 초기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4, 59-9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1 11:3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의 불교 初傳者와 초기불교의 성격

신종원*

- I. 고구려의 佛敎初傳
 - 1. 初傳僧
 - 2. 초기불교의 특성
- II. 백제의 佛敎初傳
 - 1. 初傳僧
 - 2. 불교 初傳地 靈光郡說
 - 3. 초전불교의 성격
- III. 신라의 佛敎初傳
 - 1. 初傳僧
 - 2. 阿頭多麼에 대하여
 - 3. 골품제사회와 불교의 만남
- IV. 가야의 불교

국문초록

372년에 북중국의 前秦에서 승 순도를 보내자 고구려에서는 성문사라는 절을 지어 살게 하였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고구려가 처음 불교에 접한 기록이다. 승려를 보낸 계기도 그렇고, ‘성문사’라는 이름도 관공서에 흔히 붙는 말이므로 고구려의 초전불교는 외교적이고 시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고승전 등에는 승 담시가 4세기말에 고구려에 불교를 전하였다고 하였다. 담시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대표논저 :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1)-기이편-』, 일지사 ;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2006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공저), 서경.

東晋의 승려이므로 고구려에 남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것을 말해주는 사료로 볼 수는 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로 볼 때 4세기 중반에는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격의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벽화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미륵상생신앙을 가졌고, 절을 지을 때 성대한 의식을 치른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는 384년에 東晋으로부터 마라난타가 오자 불교를 받아들였다. 나라에서 불교를 장려한 목적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이듬해에 10명의 승려가 배출된 것을 보면 이전에 불교적 기반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백제 초기불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전남 영광군의 불갑사가 바로 마라난타가 들린 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근거는 조선 시대 사료에 의거한 것이고, 고고학적 자료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신라는 눌지왕(417~458)때 고구려에서 온 목호자가 처음 불교를 전하였다고 하는데 고구려와의 관계로 보아 대략 타당하다. ‘목호자’는 ‘검은 이국승’이라는 뜻으로 별명이나 아마도 서역승이었던 것 같다. 이밖에도 초전승으로 ‘아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전도승의 대명사와도 같아서 어느 특정한 승려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후대에 신비화되었다.

신라 사람들이 처음 아도를 보았을 때 스님을 무어라고 부를지를 몰라 ‘아도삼마’라고 하였다. ‘삼마’는 곧 스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던 말이었으니 ‘샤만’을 일컫는 신라말로 보인다.

골품제사회인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적 차이를 더욱 정당화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을 중시하여 현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업(karma)을 받으니, 선행을 하여 좋은 과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승려 중에는 평민이나 노비도 많이 있으니 신분제에 별로 제약을 받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불교는 신라의 신분제사회에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였다는 설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가야불교는 더욱 전설 속에 가리워져 있다. 현재 가장 이른 가야 사료도 대개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것이므로 가야불교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특히 가야의 왕후가 인도 Ayodhya에서 왔다는 전설은 이 지명이 과거 또는 현재에 실재한 지명이 아니라는 데서 허구이다. 하지만 남해 등 해로를 거쳐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주제어 : 순도, 아도, 목호자, 마라난타, 골품제 사회

I. 고구려의 佛敎初傳

1. 初傳僧

고구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해는 小獸林王 2년(372)이다. 前秦王 符堅이 고구려에 사신과 함께 僧 順道を 보냈는데, 이때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왔다.¹⁾ 그 2년 뒤에는 僧 阿道가 왔다. 소수림왕 5년에 省門寺와 伊弗蘭寺를 지어 순도와 아도를 각각 살게 하였다.²⁾ 이러한 일련의 불교정책은 전진과 외교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따랐을 것이다. ‘省門寺’라는 절 이름은, 그것이 본래 관청 건물의 일부였음을 말해준다. 아도는 국적이 불분명하므로³⁾ 개인자격으로 전도하러 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曇始가 東晉의 太元(376~396) ‘말년’에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전했다는 기사가 崔致遠의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景明王 8년, 924) 및 중국측 고승전⁴⁾에 보인다고 하여, 오히려 이 기사가 믿을 만하다는 주장이 있다.⁵⁾ 그 이유는 순도·아도가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기사는 기껏해야 12세기에 성립된 『三國史記』에 처음 나오지만, 중국측 역사책에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삼국사기』는 중국측 史書를 보고 적당히 紀傳體로 날조한 역사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출발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
- 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6.
 - 2) 위와 같음. 문명대는 이들 절이 집안 국내성에 있었다고 보아 성문사터로서 東臺子건물지를, 이불란사터는 石柱건물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하였다(1998 「고구려 초기불교사원 성문사·이불란사의 고찰」 『강좌미술사10-고구려·발해 연구 I』).
 - 3) 『삼국사기』 소수림왕 4년조에는 국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반해 『삼국유사』 순도조려조에는 ‘아도는 쫓나라부터 왔다’라고 하였다.
 - 4) 『梁高僧傳』10, 釋曇始傳.
 - 5) 木村宣彰, 1980 「曇始と高句麗佛敎」 『佛敎學セミナー』31, 大谷大學佛敎學會, pp.30~41.

첫째,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의 순도·아도에 관한 기사는 金富軾의 『삼국사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두 책의 기사는 『삼국사기』와 내용이 다르다. 특히, 『삼국유사』는 고구려 불교의 시작에 대하여 「高麗本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고려본기」는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가 아닌 점으로 볼 때 『舊三國史』일 가능성이 크다.⁶⁾ 그렇다면 순도 등에 관한 기사는 별도의 典據가 있었다는 말이 되며, 그것은 12세기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최치원이 순도·아도 사적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최치원이 그들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반면에 최치원은 중국 문헌에 매우 밝은 사람이다.

셋째, 고구려의 불교 初傳에 관한 한 『삼국사기』는 담시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사료가치가 매우 적은 듯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撰者도 ‘末年’을 ‘末期’의 뜻으로 보았을 것이므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編年式 체제상 담시 기사는 게재될 여지가 없다.

요컨대 고구려 불교사를 이해함에 있어 중국측 문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치원의 비문 또한 절대적일 수 없다.⁷⁾

한편, 모순되는 듯한 고구려의 불교초전 기사를 整合的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 즉, 순도의 그것은 외교적·형식적인 것이고, 담시가 고구려에 옴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⁸⁾

동진의 고승 支遁道林(314~366)이 ‘高麗道人’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것은 약 30년 年上인 竺法深의 높은 德과 불교를 널리 편 공적을

6) 辛鍾遠, 1992a 「新羅 佛教傳來의 諸樣相」,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p.145.

7) 담시 初傳說을 비판한 다음 글이 있다.

金煥泰, 1986 「高句麗 佛教傳來의 諸問題」, 『佛教學報』23, 동국대;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부.

8) 한명숙, 2002 「삼국의 불교수용과 발전」, 『가산학보』10, p.56.

찬양한 내용이다.⁹⁾ 지둔도립의 생존연대를 참작하면, ‘고려도인’은 순도가 고구려에 오기 이전에 동진에서 활약한 인물이다.¹⁰⁾ 이에 대해 『해동고승전』¹¹⁾ 이래 고구려인으로 인식하여 왔는데 달리 이의가 없다.

2. 초기불교의 특성

이렇게 고구려에 온 異國僧으로는 순도·아도·담시를 들 수 있는데, 당시 그들이 전한 불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 3월에 왕이 교지를 내려 佛法을 믿어 복을 구하게 하고, 해당 관리에게 명하여 나라의 사직단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게 했다.(『삼국사기』18, 고구려본기6, 고국양왕 9년)

즉, 불교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편 정도로 이해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현세이익적이라 함은¹²⁾ 일찍이 지적되어온 바다. 하지만 이어지는 기사인 사직단 및 종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³⁾ 불교가 개인에게 복을 주는 종교라면, 종묘·사직은 나라의 체신을 갖추어 神祇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또 하나의 종교였다. 그것은 受惠者에 차이가 있을 뿐 현세이익을 위한 동기는 유교 수용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국양왕 9년은 담시가 고구려에 오기 몇 년 전인데, 초창

9) 『양고승전』4, 竺潛·法深條.

10) 辛鍾遠, 1992b 「6세기 신라불교의 南朝의 성격」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p.182.

11) 『해동고승전』1, 亡名傳.

12) 이기백, 1978 「삼국시대 불교 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p.12.

13) 박윤선이 지적한 바 있다(2004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35, p.213). 정선여는 “고구려 전통 제의의 정비와 운영의 모습으로서 불교를 장려하였다”고 하였다(2005 『고구려 불교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0).

기 불교의 또 다른 특색으로서 국가시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 기사는 실은 광개토왕 2년으로 고쳐보아야 옳다고 한다.¹⁴⁾ 그러면 그 이듬해 광개토왕 3년에 평양에 9사를 창건한 기록을 통해 광개토왕의 적극적인 불교진흥책을 알 수 있다.¹⁵⁾

하지만 史書 또는 자료의 성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초천 불교에 대한 위의 지적은 그 일면만 말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삼국사기』에 입각한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순도의 또 다른 면, 즉 인과업보에 기초한 윤리를 설교하였음을 볼 수 있다.

- 순도는 일찍이 고구려로 건너와 인도에서 전해진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인 불교를 전파하였다. 스님은 불교의 因果 원리로써 사람들에게 인간행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해동고승전』1, 순도전)

그런가 하면 담시는 신이한 스님이었다.

- 담시스님은 관중 사람으로서, 출가한 뒤로 많은 신기한 일들을 보여 주었다. 그의 발은 얼굴보다 희었으며, 진흙탕을 밟고 지나가도 한번도 물에 젖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백족화상(白足和尚)이라고 불렀다. (동)진나라의 태원 말년에 담시스님은 경장과 율장 수십 부를 가지고 요동으로 와서 교화를 베풀었는데, 三乘의 가르침을 주었고 歸戒를 세웠다. 이것이 고구려 사람들이 불도를 전해들은 최초의 일이다.(『해동고승전』1, 담시전)¹⁶⁾

1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p.283.

15) 김상현, 2005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연구재단, p.184.

16) 『양고승전』을 위시하여 동일한 내용이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도 실려 있다.

異國僧들은 포교의 방편으로 신이를 내보여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리의 전파가 본연의 모습이자 애초의 목표다. 담시는 道安이 확립한 새롭고 본격적인 불교를 고구려에 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⁷⁾

초기 고구려 불교의 성격은 오히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357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악3호분을 위시하여, 408년에 조성한 덕흥리고분 등 압록강과 대동강 유역에는 수많은 벽화고분이 있다. 무덤 안 그림에는 연꽃을 위시하여 불교소재를 그린 것이 적지 않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¹⁸⁾

첫째, 불교가 고구려에 처음 들어온 것은 늦어도 4세기 중엽 이전이 된다.

둘째, 불교의 果報說을 수용함으로써 고구려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질서 유지의 이념을 획득한다.

셋째, 내세를 현세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던 데서 淨土往生을 희구하는 轉生的 내세관으로 바뀌었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수준은 소박한 편이었다.

하지만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천1호분의 벽화는 도솔천을 경전에 입각하여 잘 묘사하고 있어 그 즈음 미륵상생신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 내세관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¹⁹⁾ 이후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후에 부처를 만나 佛法을 듣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인식이 나타나 천상세계와 불교를 연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²⁰⁾

17) 김상현, 2005 『중국 문헌 所載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pp.77~79.

18) 전호태, 1989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내세관』, 『한국사론』21, 서울대학교.

19)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한국고대사』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 위의 글.

덧붙여, 장천1호분 불상은 400년경부터 5세기 1/4분기 무렵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상으로서 똑섬출토 불상과 비교된다고 한다.²¹⁾

덕흥리고분의 먹글씨에 보이는 ‘七寶’와 관련하여, 그것은 堂塔을 세울 때 행하는 地鎮行事 즉 七寶行事圖를 그린 것이라고 한다. 이 행사의 주관자는 墓主人 中裏都督=幽州刺史刺史 鎮이며, 그는 광개토왕의 近侍官僚로서 불교를 통해 평양지역에 세력을 부식하려는데 앞장 선 중국인 망명객이었다.²²⁾ 그런가하면 덕흥리고분에 곁들인 樹木文樣은 장천1호분의 나무그림과 마찬가지로 5세기 고구려의 『무량수경』 신앙을 보여준다고 한다.²³⁾ 하지만 그것은 중화세계와는 다른 독자적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²⁴⁾

고구려에 처음 전래된 불교의 성격은 格義佛敎 및 神異的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중국의 5胡 16國 및 동진 초기 불교의 성격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축법심이나 지둔도림은 淸談格義 불교의 대가로 유명하다. ‘청담’이란 魏晉시대에 유행하였던 老莊思想의 풍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사상 기반을 가지고 불경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격의’라고 한다. 그것은 중국사회에 일찍부터 傳譯되었던 般若思想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老莊의 典籍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북중국의 胡族을 敎化시킬 때 곧잘 쓰는 방법이 신통력이었다. 呪文 등을 통해 기적을 보임으로써 위로는 국왕의 尊崇까지 받게 되었다는 영험담이 고승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한 예를 당시의 일화에서 잘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이미 後趙시대에 佛圖澄의 포교가

21) 문명대, 1991 「장천1호분 불상에배도벽화와 불상의 始源문제」, 『선사와 고대』1, 한국고대학회 ; 1998 「불상의 수용문제와 장천1호묘 불상에배도벽화」, 『강좌미술사10-고구려발해연구 I』, 한국미술사연구소.

22) 이문기, 1999 「고구려 덕흥리고분벽화의 ‘칠보행사도’와 묵서명」, 『역사교육논집』25, 경북대학교.

23) 門田誠一, 2001 「高句麗の初期佛敎における經典の實態—古墳壁畫と墨書の分析」, 『朝鮮史研究會論文集』39.

24) 위의 글.

고구려에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²⁵⁾

장수왕은 南齊 태조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며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즈음 曇超(418~492)는 제나라 태조가 보낸 즉위사절을 따라 고구려에 머물렀고, 그가 전한 불교는 남조불교라고 하겠다.²⁶⁾

II. 백제의 佛敎初傳

1. 初傳僧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때는 沈流王 원년(384)이다. 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84년) 가을 7월에 사신을 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9월에 胡僧 摩羅難陀가 진나라에서 왔다.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궐 안으로 모셔 예우하고 공경하니,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삼국사기〕²⁴ 백제 본기 침류왕 즉위년)
- (385년) 왕 2년 봄 2월에 漢山에 절을 세우고 열 사람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같은 책, 침류왕 2년)
- 백제본기에 써여 있다. 제 15대 침류왕 즉위년(384)에 호승 마라난타가 쫘나라에서 오자 궁중에 맞아들어 예경하고, 이듬해 385년에 새 도읍 한산주에 절을 짓고 10인을 度僧하였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처음이다. 또 아신왕 즉위년(392) 2월에 교서를 내려 佛法을 믿어 복을 구하라고 하였다.〔삼국유사〕 흥법 難陀闡濟)

25) 이용범, 1989 「북부중국불교의 고구려 전래」 『한만교류사연구』, 동화출판공사, pp.204~205.

26) 남무희, 1997 「고구려 승랑의 생애와 그의 신삼론사상」 『북악사론』4,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pp.52~53.

호승 마라난타가 東晉에서 오자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전에 모시고 예의를 갖추어 경배하였다. 이보다 2개월 전에 백제는 동진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는데, 마라난타는 백제로 오는 사신과 함께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나라나 처음 불교를 전할 때는 포교의 필요상 신통력이나 治病을 내세우는 등 靈異의 성격이 강한데, 그것은 僧家側, 즉 고승전 같은 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治者側 즉 나라의 敎書를 기록한 사료에는 信佛의 효용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전불교의 성격이나 특징을 논하기에는 사료상의 제약이 있고 일반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백제의 불교초전 기사 ‘崇信佛法求福’의 字句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특히, 백제의 아신왕은 진사왕이 재위 8년(392) 11월에 돌아가시어 그의 즉위년에는 2월이 없는 점과 『삼국사기』에는 下敎 기사가 빠진 점을 들어 기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²⁷⁾ 그렇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던 시기에 求福을 앞세웠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침류왕은 재위 2년 2월 漢山에 절을 짓고 열 사람을 승려로 만들었다. 이것은 불교가 전해진 지 불과 반 년만의 일이므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절이 지어지고 백제인을 불교에 귀의시켜 성직자까지 배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침류왕 시대 이전에 이미 백제에 불교가 전해졌던 것이며, 위의 初傳 기록은 公傳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는²⁸⁾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의 서울 한산 이외 지역의 佛敎勢를 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사료에 백제불교의 여러 거점을 암시하는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7) 박윤선, 앞의 논문, p.214. 조정철은 ‘二’月을 ‘十二’의 착오가 아닌지 의심하였다(2002 『백제 한성시대 불교수용과 정치세력의 변화』 『한국사상사학』18, p.251).

28) 목정배, 1989 『三國時代의 佛敎』, 동국대출판부, pp.39~40.

- 스님 마라난타는 胡僧이다. 신이와 감통이 그 경지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화하는 데 뜻을 두어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옛 기록에 따르면, 본래 인도 간다라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머물면서 법을 전하고 향의 연기를 증거로 하여 벗을 불러 들었다.(『해동고승전』1, 마라난타전)

위 내용은 『삼국사기』에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전거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비로소 마라난타의 신이와 感通力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駐錫한 절을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

앞에서 마라난타 기사를 그 앞 조공 기사와 아울러 본 까닭은 마라난타가 백제 궁실로 오는데 걸리는 道程과 그가 띤 사명 및 외교적 관례를 참작해보려고 한 때문이다. 후대의 일이지만 遣唐使가 황해를 건너는데 걸리는 일수는 南·北路 모두 보름 정도는 걸린다.²⁹⁾ 마라난타가 백제 조정에 불교를 전하는 도중에 임의로 어느 곳에 머물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³⁰⁾ 그러한 私心이 생길 여지도 없다고 보는 것이 앞뒤 사정으로 보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주장이 근년 들어 속속 나오고 있다.

2. 불교 初傳地 靈光郡說

1980년대에 들어와 마라난타가 백제에 와서 세운 절이 전라남도 영암군 佛甲寺라는 주장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³¹⁾ 그 근거로 내세우는 첫 번

29)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p.220.

30) 김복순이 지적한 바 있다(1999 『백제불교의 初傳 문제』 『현성스님환력기념논총 현대불교의 향방』 ; 2002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재수록, p.53).

31) 불갑사, 1988 『백제불교의 초전법륜성지 영광 불갑사』 『불갑사의 연혁』.

사찰문화연구원, 1992 『전통사찰총서7-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

동국대학교, 1998 『사찰조경연구』6.

홍광표, 1999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백제불교 영광전래설』 『불교학보』36.

째 자료는 1741년에 이만석이 지은 「불갑사고적기」로서,³²⁾ 이 절을 처음 지은 것이 ‘羅濟之始 漢魏之間’이라는 구절이다. 즉, 신라나 백제가 건국한 시기이며 한나라가 망하고 위나라가 건국했던 즈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시기는 기원 즈음과 기원후 200년 무렵이 되는데,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오래 전이라는 상투어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내세우는 자료는 조선시대 승려 性聰이 지은 전남 담양군 옥천사 사적이다.

- 또 호승 마라난타가 진에서 마한으로 왔다(진 태원 9년 갑신년이다. 백제 침류왕 때다).³³⁾

옥천사 사적이 불갑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위 글에서 보는 한 마라난타가 어느 절을 세웠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자료는 1798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羅州 佛會寺의 다음과 같은 상량문이다.

- 初創主 마라난타 존자는 백제의 初祖며 삼한의 고승이다. … 연대는 동진 태화 원년이다.³⁴⁾
- 백제의 初祖 마라난타가 처음 개창하였다.³⁵⁾

순천대학교박물관·영광군, 2001 『영광 불갑사 관광지구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오순제, 2000 「백제불교 初傳地에 대한 연구」 『명지사론』11·12.
 오순제, 2002 「백제 불교에 대한 재고찰-마라난타와 初傳地를 중심으로」 『명지사론』13.

민희식·장성욱, 2005 『마라난타』, 화남.

32) 1911 『조선사찰사료』상, p.221.

33) 동국대학교, 1987 「湖南潭陽法雲山玉泉寺事蹟」 『한국불교전서』8, p.477.

34) 初創主 摩羅難陀尊者者 百濟初祖 三韓高僧 … 年代即東晋太和元年也 (佛會寺大法堂上樑文)

35) 百濟之初祖難陀尊者始開 (佛會寺大用門上樑門)

이 밖에도 전라남도의 곡성·회순 등지의 사찰기록에 마라난타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³⁶⁾

그러면 불갑사에 관한 좀더 이른 사료를 보도록 하자. 고려 말의 문인이달충(? ~1385)이 1359년에 지은 覺眞國師碑銘을 보면 각진국사(1270 ~1355)가 불갑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불갑사에는 그의 탑비가 있는데 물론 불갑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영광군 佛宇條는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 불갑사 : 모악산의 골짜기가 그윽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있다. 오래된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안 보인다. 뜰 앞에 동백나무가 있는데 매우 기이하다.

불갑사 창건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자료는 이 지역 출신 睡隱 姜沆의 『佛甲寺重修勸施文』이다.³⁷⁾ 이 글에서 불갑사의 초창은 알 수 없지만 법당을 수리할 때 ‘貞元元年改造’라는 墨書銘이 나왔다고 한다. 정원 원년은 785년으로서 신라 원성왕 원년이 된다. 반계 유형원의 『東國輿地志』(1656)에도 불갑사의 창건을 신라시대라 하고 있다.

영광사의 마라난타 창건설에 의하면 靈光이란 지명은 無量光佛과 뜻이 통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절 이름 佛甲寺를 ‘부처님의 첫 번째 절’의 의미로 보는 데는 달리 이견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제에서 처음 세운 절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불갑사 마라난타 창건설의 세 번째 근거는 이 절 대웅전 용마루에 얹힌 보주 형식으로서 남방불교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³⁸⁾ 조선후기에 세워진 건물형식을 두고 그 연원을

36) 김복순, 2002 앞의 책, p.58.

37) 1911, 『조선사찰사료』상, pp.217~220.

38) 홍광표, 1999 앞의 논문, pp.178~180.

백제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형식은 통도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등 다른 절에도 몇 예가 있다.³⁹⁾

이 밖에도 마라난타가 불갑사를 세웠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마라난타가 상륙했다는 ‘아무포’는 백제시대의 지명이며, 922년에 芙蓉浦로 이름이 바뀌어, 고려 말 이후 법성포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포’는 아미타불을 함축적으로 부른 것이며, 부용포의 ‘부용’은 곧 연꽃이라고 풀이한다. 과연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리고 옛 지명이라는 것도 1988년의 『불갑사의 연혁』에 의거한 것인데 실제와 다르다. 영광군의 백제 때 이름은 武尸伊郡이며, 신라 때는 武靈郡이라 불렀다.

이렇게 보면 불갑사의 마라난타 창건설은 여전히 성립되기 어렵다.⁴⁰⁾

3. 초전불교의 성격

처음 백제에 전해진 불교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당시 동진에서 유행한 불교가 격의불교였으므로 아마도 이러한 성격의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도 있겠으나, 초창기에 그와 같은 고답적 불교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해동고승전』에서 마라난타를 평하여 ‘神異感通’하다고 하였듯이, 이즈음 백제 불교의 성격은 오히려 신이적이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의 초기 불교사상이 초보적인 因果應報·勸善徵惡의이었듯이, 이즈음의 백제불교도 그러한 성격이 있었을 것임⁴¹⁾ 간과해서는 안 된다.

39) 신종원, 1988 『삼국유사 육면비엄불서승조 역해』, 『신라문화』5.

오규환, 1991 『동양전통목조건축의 火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이러한 비판은 이미 다음 글에서 전반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조경철, 2005 『백제 한성시기 영광불법조건설의 비판적 검토』, 『향토서울』.

조경철, 2005 『백제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41) 金東華, 1962 『百濟時代의 佛敎思想』, 『亞細亞研究』5-1, p.64.

Ⅲ. 신라의 佛敎初傳

1. 初傳僧

신라 불교전래에 관한 原史料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金大問의 『鷄林雜傳』인데, 『삼국사기』·『삼국유사』·『해동고승전』에 모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신라 눌지왕(417~458) 때 고구려로부터 沙門 墨胡子가 一善郡(지금의 경상북도 善山) 毛禮의 집에 와 있었는데, 梁나라(502~557) 사신이 가지고 온 쯤의 용도를 신라에 알려주었으며, 왕녀의 병도 고쳐주었다는 것이다. 4세기 말 이래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적인 외교관계를 긴밀히 유지했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눌지왕대에 처음 불교가 전해졌다는 기사는 타당할 것이다. 다만 위 기사는 고구려와의 접경을 통하여 불교가 민간에 전해졌던 사실이 傳承으로 잘 남아 있는 경우일 뿐이며, 유물·유적을 통해 보면 고구려와 통하는 또 다른 경로인 경상북도 북부의 영주·안동쪽으로도 불교는 전해졌다.⁴²⁾

그리고 신라 왕실이 불교를 접한 시기가 고구려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았음은 5세기 초엽의 신라 왕릉 유물에서 연꽃무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왕족이 직접 가져왔거나 아니면 신라 왕실에 보내진 것이라 추측된다.⁴³⁾ 그러므로 목호자를 통하여 신라 왕실이 처음 불교에 접했다는 기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羅濟同盟(433) 이후 신라와 백제 사이의 관계는 외교나 군사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밀접하였다. 신라가 先進 불교문화를 고구려를 통해서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반적 史實과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다. 지방에 숨어 있던 목호자가 왕실에게까지 불교를 포교하였다

42) 秦弘燮, 1981 『古新羅時代 佛像樣式 北方傳來の問題』, 『新羅と日本古代文化』, 吉川弘文館.

43) 國立博物館, 1946 『壺杆塚과 銀鈴塚』, 乙酉文化社.

국립중앙박물관, 2006 『호우총 은령총-발굴60주년기념심포지엄』.

거나, 이 때 시대상으로도 맞지 않는 梁나라 사신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와 성격을 달리하는 고구려·백제 두 계통의 불교가 각각 전래된 사정이 하나로 중첩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⁴⁾ 신라는 법흥왕 8년(521)에 백제 사신을 따라가서 梁나라에 처음으로 조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참작해 볼 때, 신라는 백제를 통해 南朝의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그것은 외교적 색채가 강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신라에 전래된 불교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⁴⁵⁾

한편,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사적에 대해서는 阿道(혹은 我道) 碑文이 있는데,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추왕 2년(263)에 아도가 고구려에서 왔는데, 그는 曹魏人 我掘摩의 아들이다. 일연은 이 기사에 대하여, 시대만 너무 빠를 뿐 아도의 행적이 『계림잡전』의 목호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즉, 아도와 목호자는 동일인이며, 소수림왕 2년(374)에 고구려에 온 아도가 곧 阿道碑의 아도라는 것이다.⁴⁶⁾ 이 주장은 고구려에 온 아도가 魏나라에서 왔다는 가정 위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일연은 이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해동고승전』의 저자 覺訓의 설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각훈이 근거하고 있는 자료는 다름 아닌 阿道碑로서, 각훈은 고

44) 辛鍾遠, 1992a 앞의 논문, pp.131~155.

45) 종래 신라 초기불교에서 북방불교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글로는 金哲堉, 1952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下』 『歷史學報』2가 있다.

46) 일연의 논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는 李基白, 1978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이 있다. 아도비의 아도는 고구려에 온 전도승 아도와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특히, 이 병도는 아도가 소지왕대(479~500)에 南中國에서 백제를 거쳐 왔다고 하였다. 李丙燾, 1975 『新羅佛敎의 浸透過程과 異次頓 殉敎問題의 新考察』 『學術院論文集』14 ; 1976 『韓國古代史研究』, pp.647~649.

金煥泰, 1978 『新羅佛敎初傳者考』 『東國大論文集』17 ; 1979 『三國遺事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新興出版社, p.251.

볼코프(박노자 역), 1998 『한국고대불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구려 및 신라의 두 아도를 동일인으로 보고 이미 『해동고승전』에서 하나의 阿道傳만 둔 것이다. 아도비의 내용은 시대 착오가 심하며, 설화적 구성이 짙은 사료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아도는 쫓나라에서 왔다는 『高麗本記』의 기사가 있으므로,⁴⁷⁾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두 나라의 전도승 아도를 동일시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⁴⁸⁾ 다만 생존연대로 보아 고구려에 온 아도가 자신의 말년에 신라에 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승려가 아도라고 하는 사료는 아도비밖에 없다. 『古記』에 의하면 아도는 正方과 滅垢비에 이어 세 번째로 왔으며, 高得相의 詠史詩에는 아도가 두 번이나 죽음을 당하고 또다시 신라에 온 승려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도는 신라 전도승의 대명사와도 같이 쓰였으므로, 아도를 반드시 初傳僧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⁴⁹⁾

2. 阿頭~~多麼~~에 대하여

아마도 異國僧의 출현과 그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요행히도 기록된 것으로는 신라에 온 아두[아도]의 경우가 유일할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아래 사료를 나름대로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인 바 있는데 옮겨보겠다.

- 古記云 法師初來毛祿家 時天地震驚 時人不知僧名 而云阿頭~~多麼~~ ~~多麼~~者乃鄉言之稱僧也 猶言沙彌也 (『삼국유사』3, 아도기라조 협주)
- “고기에 말하였다. 법사가 처음 모록의 집에 왔을 때 천지가 진동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僧이란 칭호를 알지 못했으므로 아두삼마라 했다. ‘삼마’란 향언의 승을 가리키는 말이니, 사미라고 말함과 같다.”

47) 『삼국유사』3, 흥법3, 順道肇麗.

48) 볼코프도 아도의 東晋出自說이 맞다고 보았다(앞의 책, p.61).

49) 신라 佛教初傳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김상현, 1999 『신라 초전불교의 여러 문제』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가 있다.

- 불승에 대한 칭호를 몰라서 고유어인 삼마로 불렀지만 실은 사미를 뜻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사미라고 말함과 같다”를 잘못 이해하면 삼마=사미로 보아 ‘삼마’를 沙彌의 音寫로 보기 쉽다. 그렇지만 ‘사미’라는 불교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삼마’라고 불렀으니, 삼마는 향언이라고 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승이 처음 신라에 오기 전에도 재래의 성직자에 대한 칭호가 존재한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후대의 표기 ‘僧’에 집착하고 보면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⁵⁰⁾

‘ ᄉᆞ ’가 ‘샤먼’을 표기한 것이라는 私見에 대해서, 필자에게 불리한 람스테드(Ramstedt)의 설은 언급하지 않는 등 本稿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기백 선생으로부터 좋은 지적을 받았다.⁵¹⁾ 선생의 지적을 인용해본다.

- 그런데 이 ᄉᆞ 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임은 그가 소개한 대로이지만 만일 ᄉᆞ 가 샤먼의 한자표기라면 沙門·沙彌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註)

해당 註釋은 다음과 같다.

- 辛鍾遠은 沙門과 샤먼이 언어학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라우퍼(Laufer)의 견해를 소개하였으나, 이를 비판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람스테드(Ramstedt)의 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엘리아데(Eliade, M.), 『샤머니즘』, p.422 참조)

선생의 본문과 각주는 이윤기 역, 『샤머니즘』(1992, 까치)에 의거한 것이다. 관련 부분을 摘示해본다.

-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온 ‘샤먼’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를 통해서 들어온

50)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p.57.

51) 李基白, 1997 『한국의 원시사상과 전통문화』 『韓國思想史方法論』(한림과학원 총서), p.18.

통구스어 saman에서 유래한다. 팔리어 samana(산스크리트어 sramana)가 중국어 sha-men(沙門: 팔리어를 음寫한 것에 불과함)을 통해 전파되었으리라는 가설은 19세기 대부분의 동양학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 있다.(『사마니즘』, p.422)

그런데 위의 번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word "shaman," we saw, comes to us through Russian from the Tungusic saman. The derivation of this term from the Pali samana (Sanskrit sramana) through the Chinese sha-men(a mere transcription of the Pali word), which was accepted by the majority of nineteenth-century Orientalists, was nevertheless questioned quite early (in 1842 by W. Schott, in 1846 by Dordji Banzarov) and rejected by J. Nemeth in 1914 and by B. Laufer in 1917. (Eliade, M., Shamanism, trans. by Trask, W., New York, 1990, p.495)

아래에 試譯해보겠다.

- 이 용어('shaman'이란 말)가 팔리어 samana로부터 중국어 sha-men을 거쳐왔다는 由來(語源說)에 대해서는 19세기 대부분의 동양학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shaman의 어원이 팔리어에서 佛僧을 뜻하는 samana, 중국어의 沙門(또는 沙彌)에서 왔다는 설이 19세기의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즉 'shaman'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어 sha-men → 팔리어 samana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주장은 이들 19세기 학자들의 인식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어 shaman의 印度語源說은, 17세기 통구스어에서 佛僧을 의미하는 saman에서 'shaman'이 나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어의 초기 어원을 모르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인도어원설은 17, 18세기 러시아인의 여행기나 傳聞에 의거할 때만 가능한 주장이라고 한다.⁵²⁾ 그리고 조셉 니담(Joseph Needam)도 shaman의 인도어원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라우퍼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⁵³⁾ 이 ‘shaman’의 만주-통구스어설은 1947년 Diozegi에 의해 다시 표명되고, 이 주장은 그 후 헝가리 언어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⁵⁴⁾

엘리아데는 라우퍼의 주장을 반박한 람스테드를 소개하면서도 그 자신은 이 두 언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를 유보하고, 이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하여 民族誌 및 역사적 데이터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극동아시아의 샤머니즘이 불교, 특히 라마교의 등장과 그 시기를 같이하든가, 샤머니즘 속에 불교의 요소나 영향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근래 또는 과거 불교 전래 이후 불교로부터 자극받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로코고로프의 주장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샤머니즘은 선사시대 이래 각 지역의 自生的 전통임을 논증하였다.⁵⁵⁾

샤머니즘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보아도 이해된다. 불교 전래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속에 불교식 의례나 용어는 적지 않다. 그렇다고 무속의 연원이 불교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교로부터 자극 받아 그 外皮가 粉飾되었을 뿐이다. 요컨대 시대에 따른 샤머니즘의 重層的 모습을 상기하지 않으면 多麼=沙門·沙彌라는 等式에 빠져들기 쉽다.⁵⁶⁾

52) V.Voigt, 1984 Shaman -Person or Word?, Shamanism in Eurasia Part 1, ed. by Mihaly Hoppal, edition herdot, p.14.

53) 조셉 니담(이석호 외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Ⅱ』(原書 초판 1956), p.192.

54) V. Voigt, op cit, p.15.

55) Eliade, M., 1990 Shamanism, trans. by Trask, W., New York, pp.495~507.

56) 多麼의 shaman 어원설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음 논문에서 발표한 바 있다. Jong-Won Shin, 1997 On the Historical Documents Concerning Shamans in the

3. 골품제사회와 불교의 만남

국왕의 불교정책에 의해 일시에 불교가 유포된 고구려·백제와 달리 신라의 경우는 왕실 및 사회저변에 어느 정도 불교가 유행한 뒤 이차돈의 순교를 거쳐 불교가 자리잡았다.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불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得·失이 되는지, 개인의 차원에서는 믿음과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고려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새로 들어온 불교와 전통신앙 사이의 갈등·조화·융합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 약간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근래에 와서 그 진상과 사상적 배경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었다.

일찍이 손진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불교의 소극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에 유리했고, 피지배인민 계급은 단념에 의해 위안을 얻거나 사후 극락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두 계급 모두에게 환영받았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견해를 더욱 정교히 펴나간 이가 이기백이다.

- 공덕사상 혹은 인과응보설에 근거를 둔 윤회전생사상은 골품제도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긍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지배귀족들이 이 윤회사상을 그들의 신분적 특권을 옹호해 주는 이론으로 받아들였을 것임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전생에서의 어떤 그럴 만한 공덕의 응보로서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을 것이며, 또 그것은 당연한 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⁵⁸⁾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1-IX century) Periods, IV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 Chantilly, France.

아울러 라우퍼의 글 번역은 다음 책에 실렸다. BERTHOLD LAUFER(신종원 역), 1982 『SHAMAN의 語源』 『난사석주선박사고회기념 민속학논총Ⅱ』, 기념논총간행위원회.

57) 손진태, 1948 『조선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p.285.

그럴 듯한 말이지는 해도 이러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데 또한 적지 않다. 진흥왕 때 가야 정벌에서 세운 공로로 사다함은 가야인 300명과 농토를 받았으나 모두 풀어주고 전답은 사양하였다.⁵⁹⁾ 사다함이 전생에 善業을 쌓아 화랑으로 태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골품제와 대립되는 만민평등사상을 신라에 심었다.”⁶⁰⁾ 평가되며, 그의 이러한 소행이 당시에도 미덕이었기에 후세에까지 전기가 남게 되었을 것이다. ‘사다함’이란 이름이 반드시 불교에서 따온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好佛君主 진흥왕 시절에 화랑을 포함한 신라귀족들 사이에 이미 불교는 풍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관행을 벗어나고 세속적 가치를 그다지 중시여기지 않는 사다함의 언행은 불교의 영향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불교가 신라의 지배계급에게 특히 환영받을 정도로 치우친 것이었다면 평민이나 노비신분의 수많은 고승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수용을 보는 데 있어 어느 계급에 유리했을까 하는 功利的 논의는 출발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윤회설이 현세적 질서를 정당화한다는 손진태·이기백의 주장을 정경희는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윤회=인과설은 또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⁶¹⁾ 즉 『열반경』의 구절 ‘衆生悉有佛性’은 “前生에 인한 業報보다는 금생에서의 주체적 노력을 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불교 자체가 브라만교의 계급질서를 부정하는 것에서 생겨났지만,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것이 조금씩 변용되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고승이 배출되고 法席이 마련되면 설법의 내용은 불교의 고유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진평왕대의 원광은 점찰

58) 이기백, 1975 『신라 초기불교와 귀족세력』 『진단학보』40 ; 1978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p.100.

59) 『삼국사기』44, 열전 44.

60) 정경희, 1988 『삼국시대 사회와 불교의 연구』 『한국사연구』63, p.56.

61) 위 논문, p.52.

법회를 열어 행위의 선악 및 宿世의 業까지도 참회시켜 신라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진작시켰다.⁶²⁾ 뒤이어 선덕여왕대에 활약한 慈藏은 계율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자기 의지에 달린 것이고 그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는 윤리의식”을⁶³⁾ 붓다의 권위를 빌어 진작시킨 것이다.

불교교리가 골품제도를 뒷받침하였다는 설에 대한 비판은 김상현에 의해 더욱 교리적으로 보강되었고 사례도 덧붙여졌다. 그리하여 그는 “신라 골품제사회에서 불교는 그 완충적 역할을 담당한 셈”이라고⁶⁴⁾ 결론내리고 있다.

생사와 관련된 가치관이나 믿음 같은 개인적 문제와 국가나 계급 같은 사회문제와의 결부는 그 단위나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간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점점에 가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개인의 總和가 사회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것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사례를 수집하고 교리면에서도 차분한 고찰이 요망되는 문제다.

불교가 우리나라 삼국에 처음 뿌리내리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였는지, 반대로 불교를 적극 지원한 세력 또는 계층은 어떤 식으로 불교를 선전 또는 원용하였는지는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한 나라는 사례가 비교적 많은 신라 뿐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로는 먼저 정경희를 들 수 있다. 그는 충남·전북 지역의 ‘石柱型佛像’을 장승의 전통이 계승된 백제시대의 미륵상과 연결 짓고 있는데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심지어 관촉사 미륵상도

62) 신중원, 1992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63) 신중원, 1982 『자장의 불교사상에 대한 재검토-신라불교 초기계율의 의의-』 『한국사연구』39, p.24.

64) 김상현, 1999 『신라 중고기 불교사상의 사회적 의의』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p.296.

그렇게 보고 있다.⁶⁵⁾ 그는 또 진평왕이 內帝釋宮에 거동한 것이나 그가 ‘天使’로부터 玉帶를 받은 것⁶⁶⁾ 등은 모두 王者天孫說의 불교적 변용이라고 하였다.⁶⁷⁾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킨 이는 서영대다. 그는 김유신이 ‘33天의 一子’라거나 선덕여왕이 ‘도리천의 딸’이라고 하여 辰韓 6村長의 天降神話와 차별화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런 이유로 왕실에서 불교를 적극 수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⁶⁸⁾

일찍이 이기백은 흥륜사가 들어선 天鏡林을 위시하여 일곱 군대의 절터[七處伽藍之墟]가 고대신앙에 있어서의 신성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⁶⁹⁾ 이들 절터는 모두 前佛時代의 유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有緣佛國土說을 내세워 신라인들은 재래신앙과 불교의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비슷한 설명이 될 수도 있으나 정경희는 “이 땅이 바로 佛緣國土라는 생각은 성읍국가나 촌락공동체가 바로 골매기神이나 공동체의 조상신이 지키는 聖域이라는 전통적 믿음의 불교적 변용”이라고 하였다.⁷⁰⁾

이와 같이 신라 초기불교의 토착적 요소 몇 예를 들어보았다. 대개 불교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소를 채용하여 왕실 및 왕경인들의 연기 설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治者들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은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일반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태도까지 임의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65) 정경희, 위 논문, p.10.

66) 『삼국유사』, 기이 1, 천사옥대.

67) 정경희, 위 논문, p.14.

68) 서영대, 1998 「신라의 불교수용과 천신관념」 『한국사상사학』10.

69) 이기백, 1978 「삼국시대 불교 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p.30.

70) 위 논문, p.45.

IV. 가야의 불교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던 伽倻聯盟은 백제·신라 및 왜 등 여러 세력의 각축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그 문화적 발전이 결코 신라에 뒤지지 않았음은 근래의 발굴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다. 불교가 일찍부터 가야 지역에 전해졌으리라는 것은 本伽倻의 첫 임금 首路王과 그 왕비 許왕후에 관한 설화에 의해 짐작이 된다. 『駕洛國記』는 고려 文宗(1046~1083) 때에 찬술된 史書다. 이에 의하면 수로왕은 멀리 바다를 건너 온 인도 阿踰陀國의 공주 許黃玉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나중 제8대 銓知王이 그 2년(452)에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王后寺를 세웠다고 한다.⁷¹⁾ 또 金海 虎溪寺의 婆娑石塔은 허왕후가 가지고 온 것이었다는⁷²⁾ 등 일련의 설화는 가야불교의 始源이 인도 내지 南方系와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하지만 문헌고증에 의하면 고려 때 長遊寺(952년 창건)가 폐사됨으로서 그 탑을 金官城內의 호계사로 옮기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⁷³⁾ 이 외에도 경상남도 河東 雙溪寺의 「七佛庵懸板記」에는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이곳에서 成佛하였다 하여 칠불암이라 하였다는 사적이 적혀 있다.

이러한 전설적 사료에 착안하여 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근래 시도되었다. 먼저 가야 불교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아요디아 지방에서 태국의 아요디아→일본 九州→가야로 들어왔다고 하거나,⁷⁴⁾ 스키타이→간다라→인도 아요디아→중국 四川省 普州→가야→일본 구주로 왔다고 하는 흥미진진한 논증이다.⁷⁵⁾ 이들은 그 物證으로서 지명이

71) 『삼국유사』, 기이2, 가락국기.

72) 『삼국유사』, 탑상4, 금관성파사석탑.

73) 김영태, 1997 「가야불교의 史的 고찰」 『가야문화』10, pp.22~30.

74) 이종기, 1975 『駕洛國探查』, 一志社.

75) 김병모, 1994 『김수로왕비 허황옥』, 조선일보사.

나 雙魚紋의 존재를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그렇지만 씨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를 주장하려면 더욱 보편적이고 견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어문이 그렇게 세계 곳곳에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한 상징이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라 하겠다.⁷⁶⁾ 물고기는 어느 지역이나 흔하며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物像이기 때문이다.

『가락국기』에 「羅漢」·「아유타」등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이 있다. 즉 그것은 가락국의 건국설화를 인도의 아유타 왕국과 결부시킨 것이며, 아유타국에서 아직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공존하던 시절에 가야가 건국되었다고 함으로써 가야의 건국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한 날조라는 것이다.⁷⁷⁾ 적어도 「아유타」라는 지명은 불교전래 후에 생긴 것일 터이므로, 인도 지역에 그러한 지명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가락국기』는 그 순서나 분량·제목 등으로 보아 고려 문종 때 金官州知事이던 어떤 문인이 편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⁷⁸⁾

비록 신라의 사적이지만 불교는 南海路를 통해 한반도의 東南海 沿岸地方에 직수입되었다는 이야기는 「金剛山楡岾寺事蹟記」나 洛山寺의 관음신앙 유래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사료에다 가야의 건국설화까지 검토한 뒤에 “기원 전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 해상교통의 상황을 조명해 본 결과 불교가 南海路를 통해 한반도의 동·남해 연안지방에 직수입될 수도 있었다는 推斷에 이르게 되었다.”⁷⁹⁾고 말하는 이도 있다.

76) 판커즈 모한은 “물고기 상징은 다산과 연관된 어머니신의 상징으로 모든 종교에서 사용된다.”고 논증하고, 아요디아[아유타]는 『능가경』에도 나오는 등 ‘상상의 지리학’에 등장한다 하여 김병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2006 『삼국유사의 인도와 관련된 전설』,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표문).

77) 최복흥, 1986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조선과 가락국 건국신화의 불교관계자료에 대하여』(『력사과학』 1986-4 ; 1991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1, 대륙연구소).

78) 金福順, 1991 「위 최복흥의 논문에 대한 논평」,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1, 대륙연구소, p.322.

이 설은 南來說 사료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였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여,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게 되어 아 쉽다.⁸⁰⁾

인도의 불상이나 탑이 어떤 인연으로 신라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황룡사장육존상 설화가 있다. 이 또한 진평왕대의 사실을 진흥왕의 奉佛事蹟인 것처럼 연대를 거슬러 올린 예다.⁸¹⁾ 유점사 53불 연기도, 그것을 원래 인도에서 봉안하려다 실패하고 南解王 원년(4)에 有緣國土인 신라에 와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53불의 제작 시기는 “신라 하대 혹은 그보다 늦은 유점사 창건 연대로 추정”되고⁸²⁾ 있다. 따라서 유점사 창건 후 어느 시점에서, 이들 불상이 古來의 신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게 되었고, 그것이 고려시대에 閔漬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락국기』의 설화도 이러한 불국토 또는 有緣國土 신앙이 가야 지방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치원도 문경 『봉암사지증대사비』에서

- 불교가 전래됨에 있어서 毘婆娑(小乘)가 먼저 전래하였으니 四郡이 四諦의法輪을 몰았고, 摩訶衍(大乘)이 뒤에 이르러 온 나라에 一乘의 거울을 빛냈다.

고 하였다. 역시 소승불교의 先來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가야불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一善郡 지방은 지리적으로 고구려보다는 가야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우리 고대국가의 불교는 금관가야 → 대가야 → 신라의 순서로 전해졌다고 보기도 한다.⁸³⁾ 그렇지만 목호자

79) 무함마드 칸수, 1989 『한국불교 南來說 試考』 『史學志』22, 檀國大 ; 1992 『新羅·西域交流史』, 檀國大, p.312.

80) 신중원, 앞의 책, p.127에서 지적한 바 있다.

81) 신중원, 앞의 책, pp.274~277.

82) 黃壽永, 1973 『유점사 五十三佛』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pp.317~318.

83) 金煥泰, 1991 『駕洛佛敎의 전래와 그 展開』 『佛敎學報』27, pp.36~41.

또는 아도가 고구려로부터 왔다는 사료를 부정할 정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550년대에 백제의 聖王과 대가야와의 군사동맹 및 성왕의 불교전과 정책을 들어, 대가야는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한다.⁸⁴⁾ 이 주장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아동 벽화고분의 연꽃그림이 백제의 벽화고분과 흡사하다는 점도 들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한편 최치원이 지은 釋利貞傳 등을 보면, 대가야의 月光太子가 가야산 해인사의 前身이라고 할 擧德寺에서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료에 대해서도 해인사 및 대가야국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⁸⁵⁾ 기존의 사실 및 口傳을 채록했을 것이라고도 하여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⁸⁶⁾

『삼국사기』·『삼국유사』의 書名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고대 사료는 고구려·백제·신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헌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유물·유적을 통해서도 가야 불교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할 일이 또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투고일 : 2006. 11. 7 게재결정일 : 2006. 11. 22

洪潤植, 1992 『伽耶佛敎에 대한 諸問題와 그 史的 意義』 『伽耶考古學論叢』.

84) 金福順, 1995 「大伽耶의 불교」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pp.285~288.

85) 백승충, 1992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한국고대사논총』3, p.465.

86) 金福順, 앞의 글, pp.288~291.

참고문헌

- Jong-Won Shin, 1997 On the Historical Documents Concerning Shamans in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1-IX century) Periods, IV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 Chantilly, France.
- 金東華, 1962 「百濟時代의 佛敎思想」 『亞細亞研究』5-1.
- 金福順, 1995 「大伽耶의 불교」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 김복순, 1999 「백제불교의 初傳 문제」 『현성스님환력기념논총 현대불교의 향방』 ; 2002 『한국 고대 불교사 연구』.
- 김상현, 1999 「신라 초전불교의 여러 문제」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 김상현, 2005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金煥泰, 1978 「新羅佛敎初傳者考」 『東國大論文集』17 ; 1979 『三國遺事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新興出版社.
- 金煥泰, 1986 「高句麗 佛敎傳來의 諸問題」 『佛敎學報』23, 동국대 ;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부.
- 金煥泰, 1991 「駕洛佛敎의 進래와 그 展開」 『佛敎學報』27.
- 木村宣彰, 1980 「曇始と高句麗佛敎」 『佛敎學セミナー』31, 大谷大學佛敎學會.
- 문명대, 1991 「장천1호분 불상에배도벽화와 불상의 始源문제」 『선사와 고대』1, 한국고대학회 ; 1998 「불상의 수용문제와 장천1호묘 불상에불도벽화」 『강좌미술사10-고구려발해연구 I』, 한국미술사연구소.
- 門田誠一, 2001 「高句麗의 初期佛敎における 經典의 實態—古墳壁畫と墨書의 分析」 『朝鮮史研究會論文集』39.
- 박운선, 2004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35.
- 신종원, 1988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 역해」 『신라문화』5.
-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 이기백, 1978 「삼국시대 불교 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 李丙燾, 1975 「新羅佛敎의 浸透過程과 異次頓 殉敎問題의 新考察」 『學術院論文集』14 ; 1976 『韓國古代史研究』.

- 이용범, 1989 「북부중국불교의 고구려 전래」 『한만교류사연구』, 동화출판공사.
- 정경희, 1988 「삼국시대 사회와 불교의 연구」 『한국사연구』63.
- 조경철, 2005 「백제 한성시기 영광불법초전설의 비판적 검토」 『향토서울』.
- 조경철, 2005 「백제불교사의 전개와 정치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한국고대사』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홍광표, 1999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백제불교 영광전래설」 『불교학보』36.
- 洪潤植, 1992 「伽耶佛敎에 대한 諸問題와 그 史的 意義」 『伽耶考古學論叢』.

Abstract

The First Buddhist Missionaries in the Korean Three Kingdom Age
and the Nature of Early Buddhism

Sin, Jong-won

When in A.D. 372 the Northern Chinese Early Qin(前秦) Dynasty sent a monk named Sun-do to Korea, Koguryo built Seung-moon monastery for the monk. This is the first official record of Koguryo's contact with Buddhism.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ispatch of the monk and the name of the monastery itself "Seung-moon-sa", which is often used as the name of bureaucratic offices, suggests that Koguryo's Early Buddhism was diplomatic and strongly government-oriented. But in Chinese records of monks, it is said that a monk named Dam-shi brought Buddhism to Koguryo in the late fourth century. Because Dam-shi was a monk of the Southern Chinese Eastern Jin Dynasty, it is possible to view Koguryo Buddhism as Southern Chinese Buddhism, but generally speaking it is thought that Buddhism had already entered Koguryo by the mid-fourth century, judging from the contents of the Koguryo tomb murals. It is thought that Koguryo accepted Taoist Buddhism(격의불교) from China and judging from the tomb murals, Koguryo people had a belief in Maitreya in Heaven(미륵상생신앙) and Koguryo people held splendid ceremonies when Buddhist monasteries were built.

Paekche accepted Buddhism in A.D. 384 when the monk Marananta arrived from the Eastern Jin Dynasty. The reason Buddhism was endorsed by the state was because, like Koguryo, the people were supposed to believe in buddhism and receive blessings. The very next year, 10 Buddhist monks

were ordained, which shows that possibly buddhism could have entered Paekche prior to this time. A controversial point raised recently concerning the early history of Paekche Buddhism is that Pulgap monastery in Yonggwang district, South Cholla Province, is the monastery where Marananta stayed. But this claim is based on texts dating from the Choson period and also the archaeological evidence is also unconvincing.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to Silla during the reign of King Nulchi(r. 417-458) when a monk named Muk-ho-ja arrived from Koguryo. In view of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Silla at this time, this is quite possible. 'Muk-ho-ja' is a nickname meaning 'dark-skinned foreign monk', so it is possible that he was of Central Asian origin. Although another early missionary named 'A-do' also appears frequently in the records, it appears that this was not a particular monk and was rather a term meaning 'missionary' in general. Also he became mystified in later ages.

When the Silla people first saw A-do they did not know how to address him and so they called him 'A-do samma'. 'Samma' is a Silla term meaning monk that exist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and apparently meant 'shaman'.

In the past it was thought that the role of Buddhism in the hereditary caste-like bone-rank society of Silla was that it justified the interests of the aristocracy and the ruling family by the doctrine of transmigration and karma. But the Buddhist teachings place more importance in the present life than the past life and according to how much good karma is accumulated in the present life, one is rewarded accordingly. In addition, among Silla monks there were many of commoner or slave origins, which shows that Buddhism was not constrained by social classes. Therefore a new theory, whereby Buddhism was seen acting to ease class tensions was raised recently.

Kaya Buddhism is even more shrouded in mystery. The earliest extant

text concerning Kaya Buddhism was written only during the later Koryo period. Therefore it cannot be taken at face value. In particular, the legend that the first Kaya queen came from Ayodhya in India, considering that no such toponym existed either past or present, means that the legend is pure fiction. But it is highly possible that Buddhism entered Korea from the south seas or by the ocean route from the south.

Key Words : Sun-do, Marananta, Muk-ho-ja, A-do, bone-rank society.